

- 주요 뉴스: 미국 4월 비농업 고용, 예상을 큰 폭 상회해 노동시장이 타이트함을 시사
 - 바이든 대통령,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
 - 미국 증시,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및 고용지표 호조로 연초 이후 강세
 - ECB 통화정책 위원,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금리인상 지속 시사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및 기업 실적호조로 위험선호 재개
 주가 상승[+1.9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상승[+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고용지표 호조 및 애플 어닝서프라이즈로 상승
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권 불안 완화 등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정책금리 고점 인식, 차익매물 등으로 약세
 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가치는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호조로 경기침체 우려가 진정되며 상승
 독일은 ECB 위원들의 금리인상 지속 필요성 강조 등으로 큰 폭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,315.71원) 현물환 시장 휴장, 한국 CDS 하락

		5/5일	5/4일	전일대비			5/5일	5/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36.3	4,061.2	1.8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4	3.38	6bp
	유럽	465.31	460.34	1.08%		독일	2.29	2.19	10bp
	중국	3,334.5	3,350.5	-0.48%		영국	3.78	3.65	13bp
	일본	휴장	휴장	-	CDS 5y	한국	45	46	-1bp
	한국	휴장	2,500.9	-		중국	75	78	-3bp
환율	달러지수	101.21	101.40	-0.18%	위험 지표	EMBI+	423	427	-4bp
	유로화	1.1019	1.1012	0.06%		VIX	17.19	20.09	-14.44%
	엔화	134.80	134.29	-0.38%	원자재	WTI유	71.34	68.56	4.05%
	위안화	6.9094	6.9113	0.03%		구리	387.2	385.0	0.56%
	원화	휴장	1,322.8	-		금	2,016.8	2,050.3	-1.6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소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4월 비농업 고용, 예상을 큰 폭 상회해 노동시장이 타이트함을 시사

- 미국의 4월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는 25.3만명으로 전월(3월 16.5만명) 대비 8.8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(18.0만명)을 큰 폭 상회. 실업률은 3.4%로 예상(3.6%)을 상회. 시간당 임금증가율은 전월대비 0.5%, 전년대비 4.4% 증가
- 일자리 증가세는 특히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, 헬스케어, 레저 및 숙박업 분야의 고용도 크게 확대
- 예상 밖 고용지표 호조는 연준이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. 고용지표 발표 직후 2년물 국채수익률은 3.88% 수준으로 급등
- 서비스 부문의 임금은 인플레이션 행방의 중요한 지표로,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임금 수준으로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.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내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큰 폭 후퇴. 일부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바이든 대통령,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

- 의회 지도자들이 부채한도에 대해 논의하는 5.9일 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및 백악관 경제팀은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MAGA(Make America Great Again) 공화당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

■ WHO,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국제비상사태 해제

- 세계보건기구는 5.5일(현지시간)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선포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(PHEIC)를 해제한다고 공식 선언

■ 미국 증시,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및 고용지표 호조로 연초 이후 강세

- 5.5일(금요일) 애플의 실적호조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4.7% 상승 마감하고 급락했던 일부 지역은행들의 주가도 회복(PastWec +81.7%). 미 다우존스는 1.6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(+1.7%) 기록. S&P500은 1.9%, 나스닥은 +2.3%

- Refinitiv가 집계하는 '23.1분기 S&P500 기업들의 순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계속 상향조정되어 -0.7%로 예상. 지난 분기(22.4분기) 실적 전망치는 -3.2%

■ 영국 건설업 PMI, 3개월 연속 50를 상회해 확장세

- S&P에서 발표하는 산업 건전성 측정 지표인 건설업 PMI는 3월 50.7에서 4월 51.1로 상승해 작년 말 저점에서 완만한 반등세. 서비스업 PMI도 최근 3개월 연속 50 상회. 건설 경기회복은 공급망 차질 완화로 원가 부담 및 비용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것에 기인

■ ECB 통화정책 위원,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금리인상 지속 시사

- ECB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을 2%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상당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. 물가 제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 속도가 아니라 기간(듀레이션)임을 강조
- 5월 25bp 인상에 이어 6월에도 25bp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금리 경로는 아직 불확실. ECB 서베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해 5.6%, 내년 2.6%로 하향조정되었으나 2025년에도 2%를 웃돌 것으로 예상. 이에 따라 금리인상 기초를 지속하되 인상폭은 줄어든 가능성

■ 아르헨티나, 외환보유고 6년래 최저치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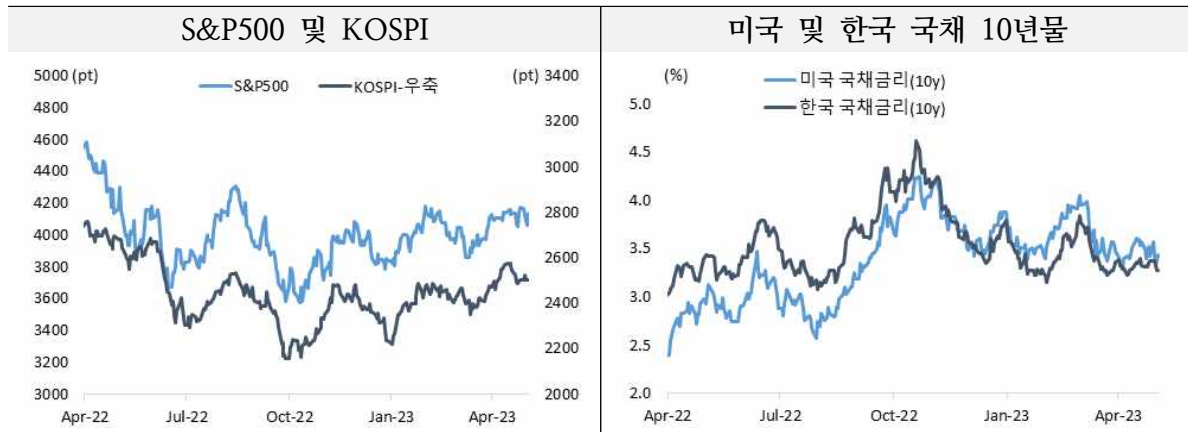
- IMF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향후 몇 달 간 8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곡물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화부족 상황이 근시일 내 해소되기 곤란.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물가에 부담에 될 것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(5/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4월 비농업 고용: 25.3만명, 3월(16.5만명), 예상치(18.5만명)
- 미국 4월 민간 비농업 고용: 23.0만명, 3월(12.3만명), 예상치(16.0만명)
- 미국 4월 실업률: 3.4%, 3월(3.5%), 예상치(3.6%)
- 미국 4월 시간당 임금상승률(mom): 0.5%, 3월(0.3%), 예상치(0.3%)
- 미국 4월 시간당 임금상승률(yoy): 4.4%, 3월(4.3%), 예상치(4.2%)
- 미국 4월 경제활동참가율: 62.6%, 3월(62.6%), 예상치(62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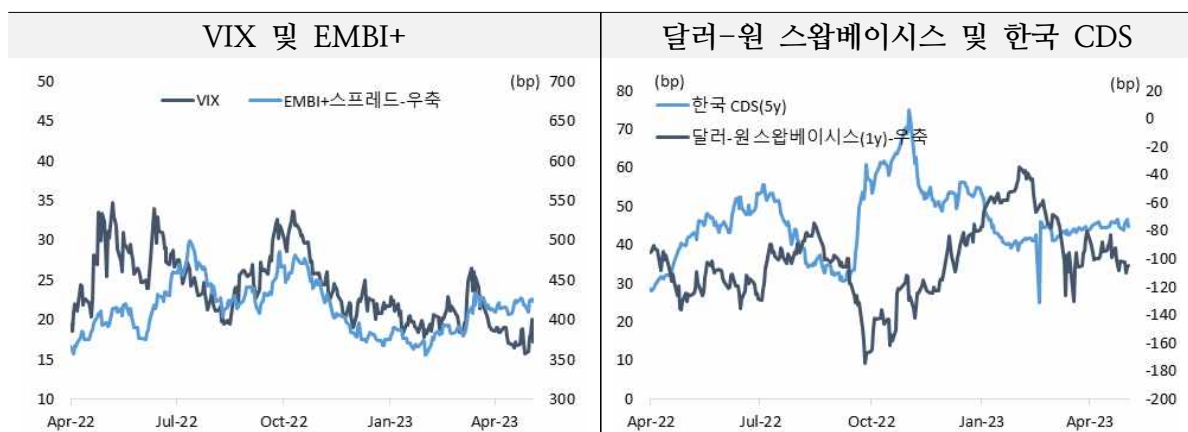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5, E-mail kimhj@kcif.or.kr